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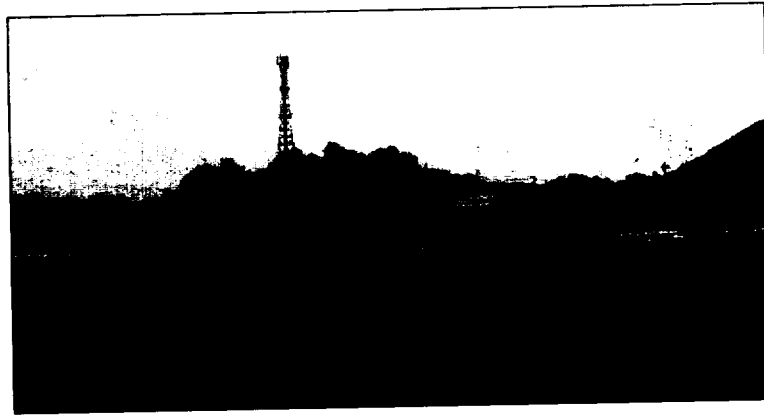
■ 현지학술조사보고

## 서귀포시 성산읍 신평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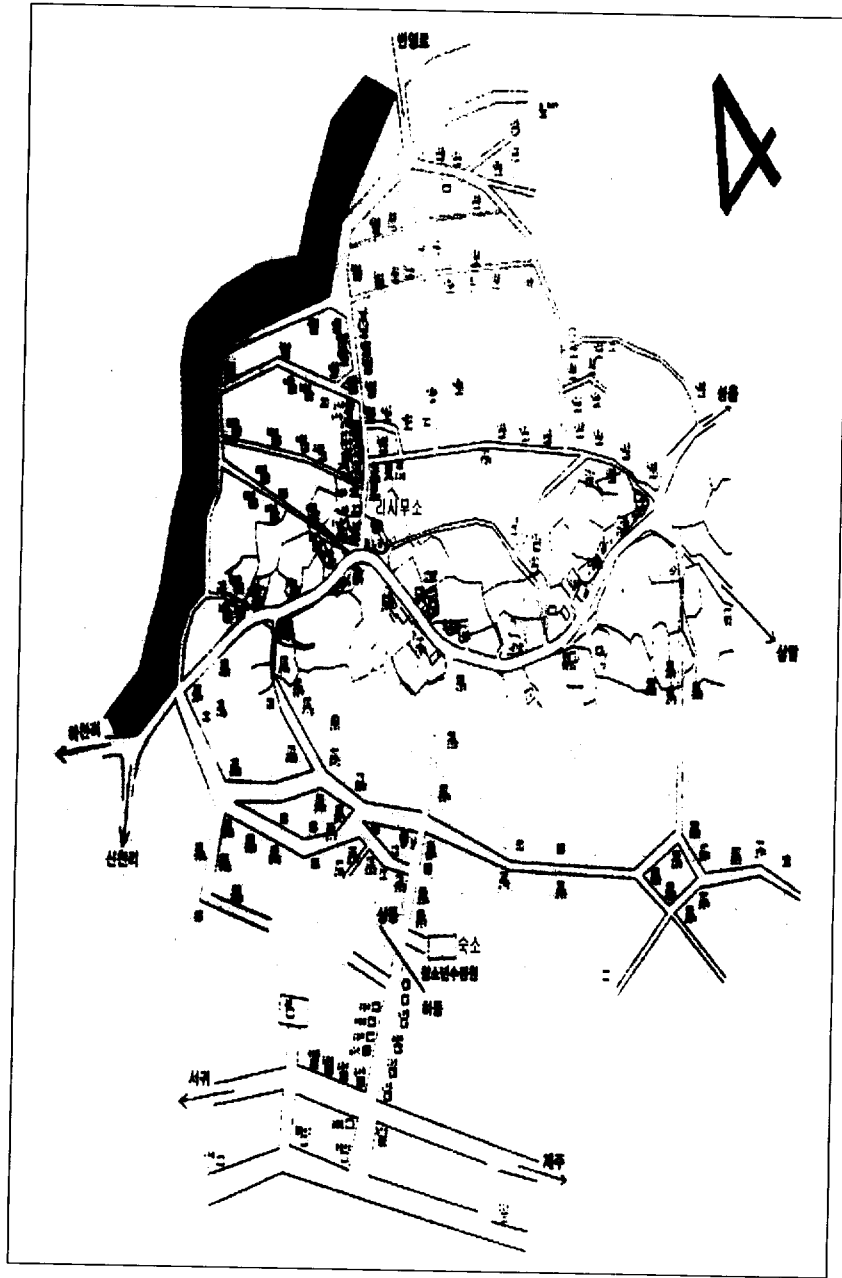
(西歸浦市 城山邑 新豊里)

2010년 6월 23일 ~ 6월 25일 조사

▣ 사회배경 / 방언 / 민요 / 설화 / 신앙 ▣



# 신평리 지도



## 사회배경

차 례

1. 지리적 환경
2. 역사적 환경
3. 인문적 환경
4. 산업구조

### 1. 지리적 환경

신흥리는 중산간에 위치한 마을로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이며 상동과 하동으로 이루어져있다.

지리적 위치는 제주도 극동 남쪽에 위치하고, 한라산 정동방향으로 위도 상 중간이며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비교적 좁은 형태를 이루고 있다. 천미천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중산간 지방부터 해안가까지 마을이 길게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본읍 소재인 고성과의 거리는 12km이며, 인근 면소재인 표선과의 거리는 5km 정도이다.

주변입지를 살펴보면 북쪽으로 성읍리가 있고, 남쪽으로 신천리가 있으며, 동쪽으로 삼달리, 그리고 서쪽으로 하천리가 인접하여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신흥리는 중산간 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오름(남산봉, 거린오름)은 물론, 하천(천미천)과 못(곱은소, 장자못)을 가지고 있다.

1) 오름

① 남산봉

신평리 1675-2번지에 있다. 조선조대에 성읍리에 정의읍(현)성이 조성되니 그 남쪽에 있다하여 남산이라 불렀고 오름의 정상에 남산봉수를 조성했던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남산봉>

② 거린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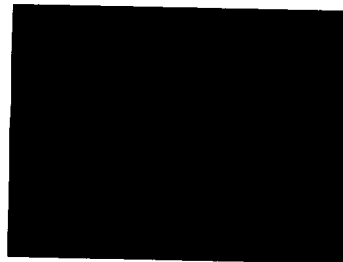
신평리 남산망 남쪽의 오름이다. 남산에서 수많은 작은 오름들이 생겨났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거린오름>

③ 붉은오름

신평리 남산 남쪽의 독새기뭇 동쪽에 있는 이 오름에 나무와 풀이 없고 붉은 화산석인 송이가 그대로 드러나 붉게 보이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높이는 120m이다. 지금은 송이 채취로 오름 자체가 없어졌지만 소나무 등이 자라고 둘레에는 삼나무가 자라는 숲으로 동산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붉은오름>

④ 본지오름

본지오름은 삼달리에 소재하지만 여기에 위치한 공동묘지를 신평리에

서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주변농경지도 신평리 주민이 많이 경작하고 있어 소개한다. 본지오름은 삼달리 2104번지에 위치한다. 표고 152m, 둘레 2,090m이다. 국도 16번 도로변에 위치하며 남산봉 동쪽에 위치해 있다. 본지낭(노박)덩굴이 많아 본지오름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원형 분화 굽부리가 침식되어 남사면 쪽으로 넓게 벌어진 말굽 형태이어서 양지바른 공동묘지로 이용되고 있다.



<본지오름>

## 2) 내와 못

### ① 천미천

천미천은 제주도에서 가장 긴 하천이다. 최초 한라산의 동북사면에서 발원하여 처음에는 동북진하다가 동진하고 다시 남동쪽으로 방향을 돌려 최후에는 표선면 성읍리를 거쳐 남진하여 성산읍 신평리 서쪽을 끼어 표선면 하천리 동쪽과 성산읍 신천리 서쪽바닷가로 도달한다.

### ② 곱은소

신평리 진동산 위쪽의 큰 소(沼)인데 마을과 하천리 사이에 있다. 이 소에는 가끔 이변이 나타나곤 하여 주민들은 신령이 살고 있다고 믿었다. 오랜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아 큰 가뭄 때에는 식수로 이용하였다. 현재는 하천 정비 공사로 매립되었다.



<곱은소>

### ③ 장자못

신평리 955번지에 있던 인공이 가미된 자연연못이었다. 조용히 마을로 들어오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④ 가래기소

신평리 천미천의 한 소(沼)인데 길이 50m, 폭 10m의 비교적 큰 소이다. 넓적한 바위가 남아 있다. 구전에 따르면 옛날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고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는 데서 연유한 이름이라고도 하고, 너른 바위와 맑은 물이 있어 선비들이나 주민들이 망중한을 즐겼다는 것으로 보아 가락이소(歌樂沼)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냇물이 갈라져 흐르며 큰 소가 형성되었다 하여 갈래소에서 비롯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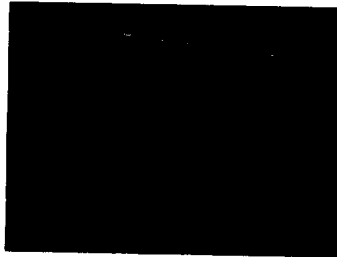
남쪽은 얕고 북쪽은 깊어 어린이들은 처음 헤엄을 남쪽에서 배우고 수영실력이 늘면 북쪽에서 놀았다.



<가래기소>

⑤ 사장터못

사장터 사거리에 있는 인공이 가미된 자연연못이다. 이 못은 음용수 못과 바로 옆에 마용소 못이 있는 곳이다. 음용수로 쓰이던 못은 깊이가 가뭄 시 40cm 정도이나 만수 시 1m가 넘는 깊은 못으로 가운데에는 연꽃이 자라고 있고 지금은 붕어 수십마리가 노닐고 있다. 마용소 못은 반월형 돌담으로 둘러싸인 바위 위에 조성된 못인데 경사면 바깥쪽은 창포가 자라고 있다. 지금은 올챙이가 가득 헤엄쳐 다니고 있다. 깊이는 가뭄 시 50cm, 만수 시 1m가 넘는다. 주택인근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애용하던 못이다.



<사장터못>

⑥ 던대못

신평리 822의 1번지 일대에 있으며 인공못이다. 마을의 동쪽에 있는 높

은 동산으로 본향당이 있고 이 곳에 있는 연못의 이름이 본디 '돈대'라 하여 높은데 있음을 은연중에 일컫던 말인데 면암선생이 도운대라 개명했다 한다. 청소년수련장 뒤편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면암선생이 타계하자 선비들이 기 곳에 단을 만들어 추모 제사를 올렸던 곳이기도 하다.



<돈대못>

## 2. 역사적 환경

### 1) 설촌 유래

신평리 경내에는 고인돌 패총 혈거유적 방묘가 남아 있고 돌도끼, 돌칼 등이 자주 발견되어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마을이 형성된 연대는 알 수가 없고 함덕 현씨가 설촌했다고 전한다. 주거지의 자취, 지명 등으로 미루어 세종 5년(1423) 정의현 치소가 현 성읍리로 옮겨온 뒤 관아가 딸린 향리들이 식수가 풍부하고 치소와 출입이 편리한 개로천 동쪽과 서쪽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이루어졌다고 추측한다.

'내끼' (넷가 또는 끝이라는 뜻)라는 마을 이름이 자연스럽게 붙여졌고, 한자로는 천미촌 또는 천미리라 표기되었다. 이때까지는 신평·하천·신평리가 분동되지 아니하여 경민장 한 사람이 세 마을을 이끌었다.

연산군 때부터 양천 허씨, 대원 조씨가 살았던 기록이 남아있다.

제도가 엄격하여짐에 따라 청금과 교생은 내 위쪽에 살아 상천미라 불렀고 그와 다른 신분은 내 아래쪽에 살아 하천미라 불렀다. 그 뒤 연대를 지키는 군속은 천미연대 부근에 모여 살아 산천미가 되었다.

그러나 경민장을 따로 두지 않았다. 1609년에 정의현 좌면 1914년에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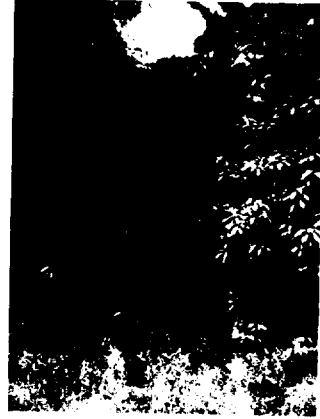
의면에서, 1935년 성산면에 편입되었다. 1873년 마을 선비 오진조가 마을 이름을 신평리로 바꾸었고, 1906년 신평리가 분동되었다가 2년 뒤에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2) 4·3과 성터

4·3사건이 있을 당시 행정영역에 대한 경찰치안이 부족하여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마을을 방어하기 위해 밭 경계를 이루는 돌담을 이용하여 성벽을 만들었다.

이는 인근 마을(삼달리, 하천리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유적으로 당시 민중이 사상에 근거하여 외세에 방어를 한 것이 아니라 약탈 및 방화로부터 마을의 식량과 주거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사건이 종결되고 성터를 이루고 있던 돌들을 다시 밭담으로 옮겨 쌓으면서 현재에는 20m 내외만 남아 전해지고 있다.



<4·3 성터>

## 3. 인문적 환경

### 1) 인구 현황

<마을 총 인구>

인 구	계(명)	남	여	세대수
	579	303	276	234

신평리는 2010년 6월 현재, 229가구로 남자 303명, 여자 276명으로 총 579명이다. 연령별 인구를 살펴보면, 0~20세의 인구는 120명이며,



65세 이상의 인구는 90명이고, 그 외의 인구가 21~65세 미만의 인구에 해당한다.

2) 기타 현황

<마을 재산 현황>

마을 재산	마을회관	경로당	창고	마을 운동장	창고	향토음식 체험장
	1	1	2	1	2	

<주요 시설물 현황>

주요 시설	청소년 수련원	학교	보건 진료소	체력 단련실	정보 사랑방	게이트볼 경기장	민박 가옥
	1	1	1	1	1	1	8

<자생 조직 현황>

자생 조직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영농회	어촌계	동호회
	1	1	1	1	1	3

신흥리의 마을 재산으로는 마을회관, 경로당 등이 있다. 주요 시설물로는 청소년 수련원, 학교, 보건진료소, 체력단련실, 정보사랑방, 게이트볼 경기장 등이 있다.

자치단체로는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영농회, 어촌계가 있다. 축구, 게이트볼, 기공체조를 함께하는 동호회가 조직되어 있다.

## 4. 산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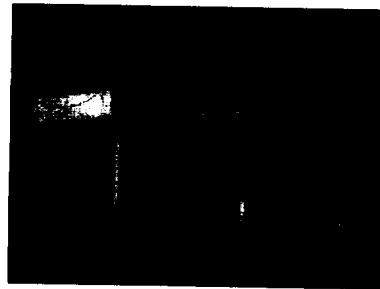
신평리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농업과 어업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 229가구 중 80%에 해당하는 162가구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가구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 신평리는 상업이 활성화 되지는 않은 마을이다.

### 1) 농업

신평리의 마을 대다수의 농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는 어업을 겸하는 가구도 있다. 주요 농작물은 과거에는 메밀, 피, 조 등의 잡곡류를 재배하였는데, 이는 자급자족을 위함이었다. 오늘날에는 무, 당근, 감자, 콩, 감귤 등을 재배하여 상품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채, 참깨 등을 재배하기도 하지만 이는 자급자족을 위함이다. 또한 영농회를 조직하고 잡목반을 설치하여 감귤 선별 등과 같은 일을 협력하여 하고 있다.

### 2) 어업

신평리는 어촌계를 조직하여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어업의 종류로는 제1종 어업계, 제2종 어업계, 제3종 어업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종 어업계는 해녀들이 주 종사자이다. 수심 10m 이내의 얕은 바다에서 소라, 전복, 성게 등을 주로 채집하는 것을 말한다. 제2종 어업계는 정치망과 펠통을 이용한



<어촌계사무소>

어획 작업으로, 수심 10m 이상의 바다에서 한치, 돛돔, 황돔 등을 어획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제3종 어업계는 근해에 나가 배를 이용하여 어획을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양식 시설을 설치하여 광어를 양식하고 있다.

### 3) 상업

신흥리는 상업이 발달하지 못하였으며, 상권도 형성되지 못하였다. 이는 과거의 자급자족 형태의 농업 활동을 한데서 유래한다. 때문에 농산물의 잉여 생산물을 자본으로 환원하기보다 마을 내에서 다른 물물로 교환 하는 형태의 거래만 이루어 졌다.

현재는 농협과 수협등의 유통망 체계를 통해 외지로 생산 작물 및 어획물을 판매하고 있다.

■ 조사자: 고제완(06), 고재원(06), 원인혁(07), 김다혜(09), 송양지(10),  
하재영(10)